



하멜등대

해상케이블카

밤바다 유람선

여수 '줄어드는 관광객' 고민한다

올 8월말 기준 방문객 소폭 감소, 지속가능 자원 개발 등 고심 고품격 관광 콘텐츠에 행정 집중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급부상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여수를 다녀간 방문객수는 930만7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935만1천명보다 4만4천명(0.5%)이 감소, 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방문객이 매일 5~10%씩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 줄어들면서 1% 이하로 급감했다. 여수시는 방문객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 관광의 골든타임으로 받아들이고, 케이블카, 여수밤바다 등을 뛰어넘는 고품격 관광 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양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주력
시는 관광종합발전전략을 통해 섬과 바다, 교량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근 화양-적금 교량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용역에 탄력이 붙었다.

이뿐 아니라 금오도 비렁길 4코스 출렁다리 설치 사업도 국비를 신청했고, 지난 5월부터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용역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바닷길을 통한 크루즈 관광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크루즈 관광객 증가를 위해 중앙정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크루즈 전용 터미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역사와 문화예술 자원 활용
시는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수시민의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 관광 자원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문을 연 예술마루 2단계 장도근극원은 9만3천㎡ 부지에 창작 스튜디오, 전시관, 다도해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장도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지역 랜드마크로 가꿀 계획이다.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도 진행한다. 묘도에 조영 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선소에 테마영상전시관을 건립한다.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돌산 진모지구에 임진왜란을 소재로한 영화세트장도 건립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관광 콘텐츠 다변화
시는 2012세계박람회 이후 잠자고 있는 박람회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먼저 시는 2022년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위해 박람회장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전시컨벤션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국내외 청소년의 해양 재난 교육을 책임질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을 내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고, 전국 최초로 해양기상을 테마로 하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MICE 산업이 박람회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갖춰진 SOC,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신뢰 구축
시는 정직한 서비스로 믿음을 주는 신뢰 관

광을 구축하고자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숙박업소 가격 공시 앱은 지난해 11월부터 활발히 운영 중이다. 10월에는 음식점 가격 공시 앱도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 관광종합대책안 내에 시민불편 대책안도 신설해 민원 30여건을 처리했다. 6월부터는 관광객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월별 분석으로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연말 종합 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음과 쓰레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낭만포치는 10월부터 거북선대교 아래로 자리를 옮기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돌산 백초-거북선대교 진입로 개설, 만덕교차로 개선, 웅천-소호도로 개설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진 '여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관광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잘 빠르게 대처해 지속가능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김영주기자 kms3056@srb.co.kr

'장성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확정

군, 유네스코 인증서 받아...해설사 배치

'장성 필암서원'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장성군은 지난 5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에 참가해 인증서를 수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서 전달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김인수 도유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배석했다.

필암서원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문묘에 위패가 안치된 지역 유림의 종장인 조선 중기의 문신 하서 김인후(1510~1560년) 학자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1590년(선조 23년) 그의 고향인 장성을 기산리에 건립됐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인조 2년(1624)에 자리를 옮겨 황룡면 필암리에 다시 세웠다.

서원 이름은 '필암(筆巖)'으로 지은 것은 김인후의 고향인 맥동 마을 입구에 있는 '붓처럼 생긴 바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서원이다.

서원에는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 일괄(노비보·원장선생안·집간안·원적·봉심록·서원성책 등)과 인종이 하서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墨竹圖)'와 '하서유묵(河西遺墨)' 등 60여건의 자료가 보존·관리되고 있다.

정성=최용주기자 young671221@srb.co.kr



광양시 2020년 신규사업 국비 역대 최대

광양항~울촌산단 도로 등 3천295억 정부예산 반영

광양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지역현안사업 9건 등을 포함한 93건 1천135억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국비 총사업비는 3천295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반영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1천900억)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386억) ▲세풍산단-광양역 연결도로 개설(320억) ▲세풍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295억)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216억)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331억) ▲중마수영장 건립공사(195억)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60억) 등이다. 신규사업 국비 확보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시는 덧붙였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가능한 예산까지 고려할 경우 2020년 국비 확보액은 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양=이승찬기자 isc6100@srb.co.kr

새콤달콤 고품질 고흥한라봉 생산한다

군, 당도·산도관리 중점 현장 기술지도 나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고품질의 '고흥 한라봉' 생산을 위해 고흥군과 친환경한라봉영농조합법인이 힘을 모은다.

고흥군은 친환경한라봉영농조합법인과 최고품질의 '고흥 한라봉' 생산을 위해 당도·산도 관리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현장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한라봉은 당도 13도Bx(브릭스) 이상, 산도 1.0% 이하일 때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새콤 달콤한 맛이 난다. 이같은 고품질의 한라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신맛을 내는 산 함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과 영농조합법인은 매일 2차례 전체 한라봉 재배 농가를 방문해 당·산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토대로 농가별 맞춤형 산도 관리를 지원한다.

또 생육단계별 병해충 관리와 과일 관리 등을 위해 농가 현장교육과 평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고흥 한라봉'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흥=백용주기자 dydw8199@srb.co.kr



기차마을에서 특별한 추석을

곡성군, 연휴 정상 운영...행사 다채

곡성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과 가을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에도 기차마을을 정상 운영한다. 증기기관차,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매일 5회 정상 운행된다.

생태학습관, 4D영상관, 치치뿌뿌 놀이터, VR체험존 등 전시시설과 미니기차, 드림랜드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도 정상시처럼 운영된다. 단 증기기관차, 섬진강레일바이크는 매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섬진강기차마을 홈페이지(http://www.gstrain.co.kr/)에서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했다.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 무대에서 키다리아저씨와 함께하는 풍선쇼, 버블쇼 등이 펼쳐진다. 기간 중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기차마을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드림랜드광장에서 풍물공연도 진행된다. 여성 타악그룹 '도리'가 신명나는 가락을 통해 관람객들을 풍물 세상 속으로 어우러도록 이끌 예정이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섬진강전문대도 연휴기간에 '한가위 보름달 관측행사', '천체 브로마이드 증정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 천문대는 추석 명절 당일인 13일은 휴관이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기차마을로 놀러 오신다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성주기자 injny@srb.co.kr



구례향교서 전통문화 배우요 구례향교(전교 김한섭)는 최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행사를 열었다. 20여명의 결혼 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향교의 전통 유복을 입고 '우리 절 예절', '다도'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문화재청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Happy 구례향교'의 체험 프로그램은 선비의 무예(국궁), 선비의 몸관리, 선비의 마음관리, 선비의 명상(정자), 선비의 여가(다도), 선비의 음악, 선비의 글읽기, 선비의 글쓰기(서예), 선비의 몸가짐(예절) 등 9개 종류가 마련돼 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화순 전남기술과학고 보건간호과 신설

군, 군수공약 4년 노력 결실 의료특성화학과 유치 성공 보건·의료산업 인력양성 기대

화순군이 지난 4년여 동안 노력한 끝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이하 기과고)에 민선 6기 공약 중 하나인 의료특성화학과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특성화고 학교 개편(재구조

화) 심의를 거쳐 기과고에 보건간호과 1학급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교육청의 보건간호과 신설 승인으로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요양병원이 많고 전남대 의과대학 이진 등 최적의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돼 있다. 군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백신(생물의약품)·보건·첨단의료산업과 연계한 의료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학

과 유치가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군과 지역 의료기관·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 군민의 공감대가 보건간호과를 유치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학과 신설 승인에 따라 기과고는 학교 건설팅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학과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학년 신입생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입생 모집은 보건간호과 1학급 22명으로, 11월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간 입학원서를 교부·접수한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